

영재부터 마에스트로까지…촘촘한 ‘AI 인재 사다리’ 완성

글로벌 반도체 기업 ARM 협력 ‘ARM 스쿨’ GIST 유치 전문가 양성
AI사관학교 ‘고급·심화’ 중심 개편…기업 프로젝트 주도할 인재 육성
GIST 부설 AI영재고 2027년 개교 목표…전남대, AI융합 혁신 교육

“결국은 사람이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미래 산업 대변혁의 성패는 이를 이끌어갈 인재 확보에 달렸다.

하드웨어 인프라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운용하고 혁신을 만들어낼 소프트 파워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는 새해부터 기초 교육부터 최상위 전문 과정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인재 양성 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상위 글로벌 인재 육성이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설계 기업인 영국 ‘Arm’사와 협력해 추진하는 ‘Arm 스쿨’이 광주 과학기술원(GIST)에 등지를 텁다.

최근 정부와 Arm 간 협약을 통해 가시화된 이 프로젝트는 광주에서 향후 5년간 1400여 명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정부 간 협력을 계기로 성사된 이 학교는 광주가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

어 글로벌 수준의 팝리스 인재 거점으로 도약함을 의미한다.

지역 AI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광주 AI사관학교’도 한 단계 진화한다.

지난 5년간 1500여 명의 실무 인력을 배출해 온 사관학교는 내년 7기부터 교육 과정을 ‘고급·심화’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단순 코딩 교육을 넘어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AI 마에스트로’급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26년 국비 105억 원을 전액 확보했으며, 최고 수준의 멘토링과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이다.

꿈나무를 위한 조기 발굴 시스템도 속도를 낸다.

GIST 부설 ‘AI 영재고등학교’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견학 설계와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한다.

AI 영재고는 중등 단계부터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뿌리’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국비 31억 4000만 원이 투입되어 학교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역 대학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전남대학교는 AI 융합



광주시가 ‘전주기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 등 미래 산업을 이끌 AI 인재 육성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열린 ‘광주 AI사관학교 6기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에서 참석자들이 사업 성과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대학을 중심으로 전공의 벽을 허무는 혁신 교육을 도입한다. 전교생 대상 AI 교양 필수화, AI 융합 부전공 신설 등을 통해 어떤 전공을 하든 AI 활용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구상이다.

김남희 광주시 AI반도체과장은 “영재고에서 발

굴된 인재가 대학과 사관학교를 거쳐 전문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순환화 구조가 완성되고 있다면 광주에서 배우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삼성전자·앰코 ‘앵커기업’이 끌고 ‘창업밸리’가 만다

대기업 협력사 동반 성장·스타트업 기술 제휴…안정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광주역 일대 호남권 최대 ‘창업밸리’ 본격화…수도권 74개사 투자 유치

광주 대변혁의 종착지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 즉 일자리다.

올해 광주는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가시화되며 미래 핵심 산업의 전초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들 앵커기업의 투자를 지렛대 삼아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의 행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FlaktGroup)’의 한국 생산라인을 광주에 건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가전 산업의 메카’인 광주가 삼성의 개별 공조 시스템과 플렉트의 중앙공조 기술이 결합된 ‘글로벌 공조 시장’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게 되는 셈이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의 투자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125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의 하나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전남도 유역)에 1GW(기가와트) 규모의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해 그린수소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AI 모빌리티 선도도시인 광주에 대한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분야 투자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러한 대기업 앵커기업들의 든든한 기반 위에 쇠퇴했던 구도심인 광주역 일대는 호남권 최대의 ‘창업밸리’로 다시 태어난다.

이미 ‘빛고을 창업스테이션’이 위용을 드러냈고, 올해에는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복합허브센터’가, 2027년에는 민간 주도 창업 지원을 위한 ‘기업혁신 성장센터’가 차례로 들어선다. 광주시는 이곳을 투자 유치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광주판 판교테크노밸리’로 기워 창업 열기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실제 기업 유치 성과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수도권 등 타지역 유망 기업 74개 사와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업이 약속한 투자 금액만 1713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495명의 신규 직원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라인 구축 등에 따른 협력사 간접 고용 효과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 이상의 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해 열린 ‘CES 2025’ 광주공동관에서 광주시 관계자와 참여 기업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앵커기업 유치와 창업밸리 조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했다.

〈광주시 제공〉

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광주가 키운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안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AI 전문 기업 ‘이스트소프트’의 경우 광주 AI사관학교 조기 수료생 5명을 즉시 채용한 데 이어, 정규 수료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진행하며 채용을 연계하고 있다.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공 모델이 만들어지

고 있는 셈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국내 3대 그룹이 광주·전남을 AI, 공조, 수소 등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낙점한 것은 거대한 전환점”이라며 “앵커기업 유치와 창업밸리 조성이 맞물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형 실리콘밸리 이제 시작합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오랜 기다림의 끝

